

##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수련회:** 신년맞이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2년 1월 6일(금) - 7일(토)  
장소: 2596 Cambridge Rd, Te Awamutu
- ② **선교학교:**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단기선교의 이해입니다(이태한 목사).  
일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Chapel Room
- ③ **총회:** 남녀 선교회 총회가 11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남 선교회	결혼~66년생	65~60년생	59~53년생	현재와 동일
여 선교회	결혼~66년생	65~61년생	60~53년생	현재와 동일

- ④ **기도:** 기섭 형제를 위한 11월 기도 작성서 제출 바랍니다.
- ⑤ **수정:**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포함) 상호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성도들 연락 바랍니다.
- ⑥ **달란트 잔치 신청:** 아동부와 함께 11월 20일 1부 예배 후 채플실에서 "Calvary's Got Talent"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 ⑦ **세례자:** 지난주에 심세빈(유아세례), 이은숙, 가정훈, 박수영 세례받았습니다.
- ⑧ **월례회:** 부부, 1남,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 있습니다.

## 갈보리 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 11월 교회 일지

- 이삭줍기 주일:  
11월 20일 (주일)
- 공동체 주간 예배:  
11월 23일 (수요일)
- 대림절 1, 총회 주일:  
11월 27일 (주일)
- 단기선교 출발:  
11월 30일 (수요일)

## 교우 소식

이사: 정상호(유지선) 가정 37A Seaview Rd, Glenfield 441-3000

### 11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6일	현석호	장연식	강동호	심경순/김광자
13일	고성일	김이삭	경덕현	심경순/김광자
20일	박덕철	방명아	박제용	심경순/김광자
27일	박병민	원미경	정진택	심경순/김광자

### 단기 선교 훈련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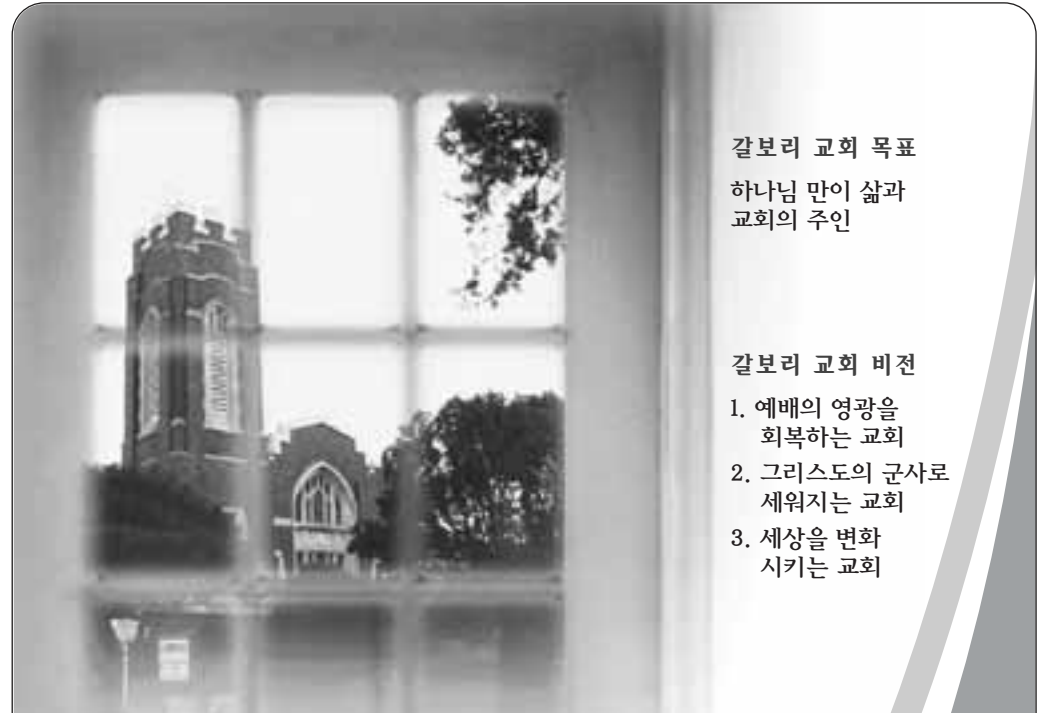
	강의 주제	강사
11/10	단기선교의 이해	이태한 목사
11/17	선교와 기도	안광국 목사
11/24	바누아투 배우기/종강예배	진혜령 전도사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기섭 형제에게 올바른 환암 치료 방법이 결정되도록. 골수 이식에 따른 준비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2. 연약해진 장기들이 강건해지며, 기섭이를 비롯한 가족들이 믿음으로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도록.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우선을 두는 생활과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나태하지 않고 신앙의 경건으로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4.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바누아투 단기선교에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로 동참하고 교회 안에 선교의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휴무장로 : 김영길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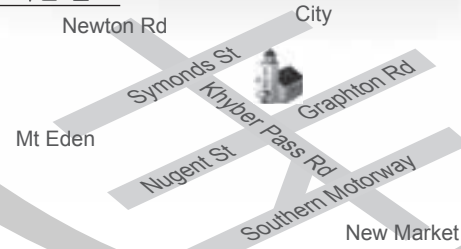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1월 6일

주보 13권 45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하박국 3:17-18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8장	다함께
*성서교독	84. 히브리서 11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9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4:13-2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b>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용기</b>	이태한목사
찬송	327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고성일집사 11월 20일: 박덕철집사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1,190.00 총계: \$602,591.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말은이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에스겔 4:1-8	인도자	
설교	<b>징조가 되리라</b>	심창진목사	
찬송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장연식집사

## 성서교독 84.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유동연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마가복음 5:35-43	인도자	
설교	<b>달리다급</b>	심창진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21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 애찬 기도: 진혜령전도사  
다음 주 기도: 강동호집사

## 갈보리 칼럼

### 사랑은 반복이다.

그 유명한 8복의 첫 시작은 이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얼마 전 하나님 은혜로 셋째를 출산하고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까 하고 고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때보다 오랜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가난’이라는 한자어 ‘빈(貧)’ 자였습니다. 참고로 첫째와 둘째 아이도 ‘빈’ 자를 썼지요. 그 와중에 알게 된 사람이 일본의 현대 예술가이며 서예가였던 이노우에 유이치입니다. “30년에 걸쳐 쓴 ‘가난할 빈(貧)’ 자는 가난하지만, 가난에 꺾이지 않기 위해 쓴 글씨로 질박하며 과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빈이라 한다. ‘산다는 것은 쓰는 것’ 그는 칠십 평생이 한마디에 목숨 걸고 살았다.” 무언가를 평생토록 반복해서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건 반복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반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석봉과 그 어머니의 일화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절에서 공부한 지 수년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한호는 몰래 절을 빠져 나와 집으로 찾아왔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말없이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자신은 칼로 떡을 썰고 한호에게는 붓글씨를 쓰게 하였다. 불을 켜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크기나 두께가 모두 똑같아 보기가 좋았는데, 한호가 쓴 글씨는 서로 제 각각 모양이 비뚤비뚤하여 보기가 흥했다. 어머니는 한호를 크게 꾸짖으며 글씨를 고르게 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 올 생각 말라며 한호를 다

시 돌려보내 글씨 공부에 매진케 하여 당대의 명필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반복의 시간, 떡 썰기의 그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사랑은 험없는 반복의 과정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받고 싶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편 120-134편의 성전 순례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우리 몸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생명이란 선물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로 가득 찬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란 선물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을 천천히,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적으로 읽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그러하였는지... 사랑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반복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반복 속에 평생토록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 심창진 목사